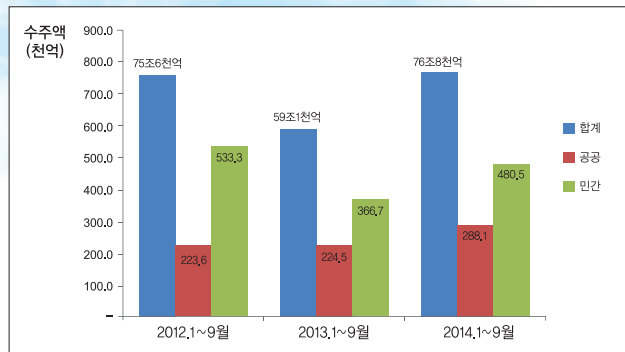


2014년 1~9월 국내건설수주액 전년대비 30% 증가

민간 부문 약진, 공공수주 물량도 상승세

대한건설협회(회장 최삼규)에서 조사·발표한 국내건설 수주동향조사에 따르면, 2014년 1~9월 누계 국내건설공사 수주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59조1,155억에 비해 30.0%나 증가한 76조8,590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증가세는 공공부문의 수주물량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특히 민간 부문이 약진하며 전체 상승세를 주도했기 때문이다.

〈그림 1〉 2014년 1~9월 국내수주 실적



자료 : 대한건설협회

1~9월 공공부문 건설수주 전년대비 28.5% 증가

2014년 1~9월 공공부문의 국내건설공사 수주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22조4,473억에 비해 28.5% 증가한 28조8,083억원을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세부적으로 토목에서는 기계설치와 항만, 조경부문에서 감소했으나 치산치수·농림수산을 비롯해 도로교량, 철도궤도, 상하수도 등 여타 SOC기반시설에서 수주가 증가해 상승세를 이어갔다. 세부적으로는 치산치수(유수지 저류시설, 양산천, 내성천 하천공사), 농림수산(산동·금학지구 농촌용수개

발사업) 및 도로교량(제2여객터미널 진입도로공사, 수도권 제2순환 회도~양평간 고속도로공사), 철도궤도(김포도시철도, 중앙선 도담~영천간 복선전철), 토지조성(수성의로지구 단지조성공사, 빛그린 산업단지 조성공사) 등 전 공종의 수주물량이 고루 증가하여 전년동기대비 36.9% 증가한 18조7,043억원을 기록했다.

공공부문 건축에서는 신규주택과 재개발 물량이 늘었고, 사무용건물과 기타 문화시설 등의 수주물량이 증가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세부적으로는 신규 공공주택물량(위례신도시아파트, 화성동탄아파트)과 사무용 물량(한국동서발전 사옥 건축, 하이원 워터월드 건축공사)이 모두 증가하며 전년동기대비 15.0% 늘어난 10조1,042억원을 기록했다.

〈표 1〉 연도별 상반기 국내 건설공사 수주실적 누계(2014.1~9)

(단위 : 억원, %)

구분	합계	발주자별							공종별				
		공공	토목	건축	민간	토목	주거	비주거	토목	건축	주거	비주거	
2012	756,989	223,648	137,438	86,212	533,340	139,203	218,343	175,795	276,640	480,350	255,656	224,692	
2013	591,155	224,473	136,646	87,827	366,682	61,920	156,448	148,313	198,567	392,590	176,593	215,997	
2014	수주액	768,590	288,083	187,043	101,042	480,507	48,772	263,320	168,414	235,814	532,776	288,432	244,343
	전년동기비	30.0	28.3	36.9	15.0	31.0	-21.2	68.3	13.6	18.8	35.7	63.3	13.1
	2012년동기비	1.5	28.8	36.1	17.2	-9.9	-65.0	20.6	-4.2	-14.8	10.9	12.8	8.7

자료 : 대한건설협회

1~9월 민간부분 건설수주 전년대비 31% 증가

2014년 1~9월 민간부분의 국내건설공사 수주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36조6,682억원에 비해 31.0%나 증가한 48조507억원을 기록하며 전체 건설수주를 주도했다.

이를 공종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토목부분에서는 항만과 상하수도, 토지조성 부분에서 수주가 약간 증가했으나 농림수산과 사방하천 등 환경개선 관련 사업 및 SOC 관련 분야에서는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즉 항만(인천신항 컨테이너 부두 상부공사)과 상하수도(삼성전자 수원 정수장) 및 토지조성(원자력 산업단지 토지조성공사), 조경(엘림 추모공원 조경공사)에서 약간의 수주증가가 있었을 뿐, 여타 전 공종의 부진으로 전년동기대비 21.2% 감소한 4조8,772억원에 머물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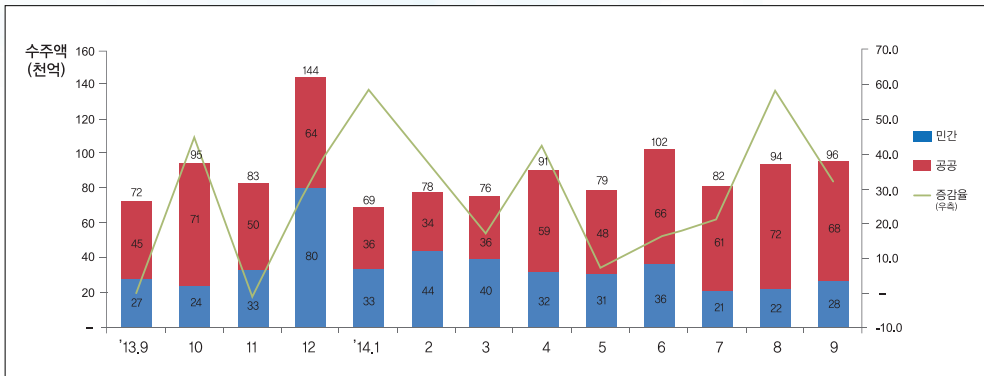
반면 건축은 주거부문(신규, 재건축)이 비교적 활발한 수주증가를 이여간 가운데 사무용 건물 수주물량도 양호한 모습을 보여 작업용과 학교·병원 수주물량 및 문화체육시설에서의 부진을 상쇄하였다. 즉 이 기간동안 주거용 신규(용호만 W주상복합, 힐스테이트 영동 신축, 수원아이파크시티 4차)와 재건축(공릉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대구신암지구 주택재건축), 재개발(부산 명장1 재개발아파트 건설

공사, 반여1-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수주가 활발하게 진행된 가운데 사무용 건물(잠실 롯데월드, 해운대 비즈니스호텔)과 기타 문화체육시설 및 터미널 수주물량도 증가하여 전년동기대비 41.7%나 증가한 43조1,735억원을 기록했다.

6월 국내건설수주 전년동월대비 32.1% 증가

한편 2014년 9월 국내건설 공사수주액은 전년동월의 7조2,550억원에 비해 32.1% 증가한 9조5,804 억원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지난해 12월 이후 9개월 연속 증가한 것이다. 9월 국내건설수주액을 발 주부문별·공종별로 살펴보면 공공부문 수주가 2조7,504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0.2% 증가하였다. 공종별로는 토목공사가 농림수산(예당저수지 물넘이 확장공사, 영산강3-1지구 대단위농업종합개발 사업)과 발전송전배전시설(평택2복합화력 EPC건설공사, 인천공항 3단계 정보통신 관로선로 공사) 및 토지조성(울산테크노 일반산업단지조성공사, 양주신도시(옥정)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에서 수주 가 증가함에 따라 여타 SOC관련 수주 부진을 상쇄하여 전년동월대비 29.6% 증가하였다. 공공부문 건축은 사무용 건물(부산 BIFC 2단계 복합시설 신축공사)에서 수주가 증가했으나 주거와 작업용 및 학교, 병원, 관공서가 모두 부진하여 전년동월대비 35.5% 감소한 7,998억원에 머물렀다.

〈그림 2〉 월별 국내건설수주실적 및 증감률 추이



자료 : 대한건설협회 주 :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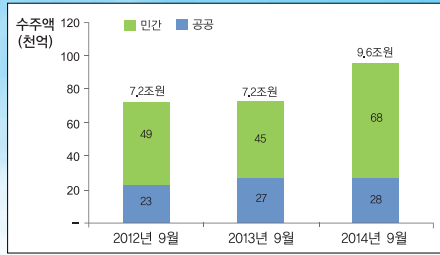
2014년 9월 민간부문 건설 수주액은 6조8,300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51.5% 증가하였다.

공종별로는 토목이 항만(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과 철도궤도(소사~원시 복선전철 건설공사) 및 기계 설치(KAK-PROJECT) 부문에서 선전하였으나 치산치수와 농림수산 및 토지조성, 발전시설 등 전반



적 토목공종의 부진으로 전년보다 3,577억원 감소한 5,009억원에 머물렀다. 건축은 주거용 중 신규주택(경산 펜타힐즈 더샵 아파트 신축공사, 광명역파크자이)과 재건축(안산중앙주공2단지 재건축공사, 안산고잔중앙주공1단지 주택재건축사업) 물량이 증가하였고, 사무용 건물(현대프리미엄 아울렛 송도점 신축공사)과 작업용 건물(Amkor K5 글로벌 R&D센터) 및 기타시설(운북지구 운항훈련센터 신축공사, (민자)인천신항1-1 컨테이너 A터미널 건축공사) 등에서 고루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73.4% 증가한 6조3,291억원을 기록했다.

〈그림 3〉 연도별 9월 국내건설수주 실적



자료: 대한건설협회

〈표 2〉 연도별 9월 국내건설공사 수주실적

(단위: 억원, %)

구분	합계	발주자별							공종별				
		공공			민간				토목	건축			
		토목	건축	토목	주거	비주거	토목	주거	비주거	토목	주거	비주거	
2012	72,613	23,155	8,376	14,779	49,457	10,721	23,453	15,284	19,097	53,516	32,363	21,153	
2013	72,550	27,455	15,052	12,403	45,096	8,586	19,225	17,285	23,638	48,913	23,228	25,685	
	실적	95,804	27,504	19,507	7,998	68,300	5,009	39,724	23,567	24,516	71,288	41,314	29,975
2014	전년동기비	32.1	0.2	29.6	-35.5	51.5	-41.7	106.6	36.3	3.7	45.7	77.9	16.7
	2012년동기비	31.9	18.8	132.9	-45.9	38.1	-53.3	69.4	54.2	28.4	33.2	27.7	41.7

자료: 대한건설협회

한편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전월에 이어 2014년 9월 건설수주가 큰 폭으로 증가한 가운데 특히 그동안 부진했던 민간부분이 약진을 거듭하고 있다는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수주 물량 증가는 주거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의 수주가 증가한 것이 원인으로 SOC 물량에 의존하고 있는 소규모 지방·중소건설업자의 경우 어려움이 여전하다”라고 지적한 뒤 “세수 부족으로 인해 기재부에서 SOC 예산 집행을 미루고 있어 소규모 지방·중소건설업자의 수주난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또한 “균형 잡힌 수주 시장과 더불어 국내 건설경기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국민편익이 보장되는 생활밀착형 SOC나 문화·체육시설 및 복지시설, 그리고 지역주거환경 정비와 관련된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